

이흥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에비어! 널모래가 거시기다만/ 교통이 아주 거시기할 모양이니/ 땡겨갈라고 너무 거시기하지 마라./ 니 업니나 나는 다 거시기하다./-/ 요즘 조매 거시기한 줄 안다만/ 사람 사는 게 다 거시기한 것이니까/ 너무 거시기하지 말거라./ 곧 거시기한 날이 올 것이다./ 그림 항상 거시기해라.” (하봉재의 ‘소통’)

시골에 사는 부모의 마음이 거시기라는 말 한마디에 잘 나타나 있다. ‘귀신도 모르는 게 거시기’라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명절만 되면 꼭 막히는 귀성길. 올해 역시 서울에서 광주까지 여덟 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그 고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리운 고향을 찾아 집을 나선다. 하지만 자식들이 고행할 일을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안쓰럽기만 하다. 그대 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하는 말이 “땡겨 갈라고 너무 거시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올 설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다. 이른바 귀성(歸省)이다. 여기에서의 ‘귀(歸)’는 ‘돌아간다’는 뜻이요 ‘성(省)’은 원래 사소한(少) 물체까지도 본다(目)는 것이니 ‘살피다’라는 뜻의 한자다.

그렇다면 ‘귀성’은 고향에 돌아가 무언가를 살핀다는 것 아닌가. 도대체 무엇을 살핀

다는 것일까? ‘귀향성친(歸鄉省親)과 ‘귀향성묘(歸鄉省墓)의 준말이 귀성(歸省)이라는 데 해답이 있다. 고향에 돌아가(歸鄉) 부모를 살피며(省親) 조상의 산소를 살피는(省墓) 것이 곧 귀성인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일지라도 부모님을 살피기 위해 고향에 간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자식들을 위로한다. 너희들 고향 오는 것 다 안다면서 “요즘 조매 거시기하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거시기한 것이니까 너무 거시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삶이 고달픈수록 우리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받기 위해 고향을 찾는 것이기도 모르겠다.

사는 게 다 거시기하다지만

올해도 고향은 예전 그대로였다. 마을마다 귀성 환영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누구누구 손자가 로스쿨에 합격했다니, 누구누구 아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니 내용도 바람에 나부꼈다. 집집마다 웃음소리와 함께 기름진 음식 냄새가 솔솔 담을 넘었다.

유난히도 길었던 설 연휴를 보내고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 비로소 올미년(乙未年)이 시작됐으니 정초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새해 다짐을 한다 한들 누가 뭐라겠는가.

또한 진짜 양의 해는 설을 쇠고 나서부터라 할 것이니, 새삼스레 지금 양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크게 허물하지 않으리라 믿어 보는 것이다.

양은 발톱이 있으나 핏줄이 없고, 이빨이 있어도 물어뜯지 않으며, 뿔이 있어도 공격하지 않는다. 양은 또 늘 무리 지어 사는데 거기에 배려와 존중이 있으며 그게 없으면 결국 사람이 뿌리내릴 수 없다. 우리네 삶도 그처럼 되었으면 좋으련만...

한자에서 아름다움 ‘미(美)’는 양 ‘양(羊)’자와 큰 ‘대(大)’자가 합쳐진 것이다. (원래는 양을 잡아 머리 위에 치켜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군집이 돌 만큼 멋있었다 혹은 아름다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한나라 때 허신이 만든 문자 해설서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도 “아름답다는 말은 곧 멋있다는 말과 통하는데 양이 크다는 말이 서 나왔다”고 풀이하고 있다.

울을 ‘의(義)’자 역시 양과 관련이 있다. 양 ‘양(羊)’자와 나 ‘아(我)’자의 결합이다. 창 혹은 칼을 들고 제대로 울게 잡아 반듯하고 고르게 고기를 잘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착할 ‘선(善)’은 또 어떤가. 양(羊)처럼 순하고 온순하며 부드럽게 말(口)하는 사람을 나타내어 ‘착하다’는 뜻이 됐다.

상서로울 ‘상(祥)’자도 재미있다. 신(神)을 의미하는 ‘시(示)’자와 ‘총다’는 뜻을 가진 ‘양(羊)’으로 이루어졌으니 신이 내려 주는 좋은 일 곧 행복을 뜻한다.

양은 권력과의 관계가 있다. 한 고조 유방이 곧 양 꿈이 그 예다. 유방은 한나라를 세워 왕이 되기 전, 큰 양을 잡자마자 뿔을 뽑고 꼬리를 잘라버리는 꿈을 꾸었다. 주위에서는 왕이 될 꿈이라고 했다. ‘양(羊)’자에서 뿔과 꼬리를 없애면 임금 ‘왕(王)’자가 되기 때문이다. 과연 그는 항우를 물리치고 왕이 되었다.

거시기한 날 더 많아졌으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초야에 묻혀 지내던 이성계가 꿈에서 양을 잡으려는데 뿔과 꼬리가 뿔뿔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다. 무학대사가 해몽을 했는데 역시 왕이 될 조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이성계 추종 세력이 중국 고사의 권위를 빌어 역성혁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꾸며냈다고 볼 수도 있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다. 한데 이 속담은 해가 바뀌면서 “가는 말(馬)이 고와야 오는 양(羊)이 곱다”라는 우스갯소리로 변형됐다. 갑오년 ‘말의

해’가 워낙 험했기에 올미년 ‘양의 해’도 곱게 지나가겠느냐는 걱정과 우려가 담긴 것이다.

얼마 전 광주 대인시장에서 보았던 한 전 시회의 초대 문구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 같다. “올미년(乙未年)을 맞아 모든 을(乙)과 미생(未生)들을 희망의 해(해)로 초대합니다.” 이 멋진 문구처럼, 갑의 횡포가 횡행했던 지난해 갑오년과는 달리 올해 올미년은, 을의 수난이 더 이상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돌아보면 지난해에는 사슴을 놓고 기어이 말이라 우기기나(指鹿爲馬), 양 고기를 걸어 놓은 채 개고기라 속이는(羊頭狗肉) 일들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머느리가 말을 날아도 구박하지 않는다’는 양의 해인 올해엔 제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라는 노랫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순한 양이 되어, 풀밭 같은 너른 가슴에서 맘껏 뛰어 놀았으면 좋겠다. 양(羊)을 품고 있는 ‘선(善)’과 ‘미(美)’ 그리고 ‘의(義)’ 자처럼, 모두들 착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 사는 게 다 거시기한 것이었지만 상서로울 ‘상(祥)’으로 가득한, 거시기한 날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후보들 어깨띠 두르고 나흘로 선거운동

■ 조합장 동시선거 선거운동 첫날

검증 토론회·집회 금지...“현 조합장에 유리” 불만

오는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 농·축·수협·산림조합 동시선거 후보자 등록과 함께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모두 196곳의 조합장을 뽑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26일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자산 규모만 1조923억원, 조합원만 1600여명에 이르는 광주 남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이완수 현 조합장을 비롯해 모두 4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김옥태 현 조합장의 불출마로 무주 공산이 된 동곡농협에는 김순옥 전 이사 등 7명이 등록해 지역 최대 경쟁률을 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는 등 후보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79곳의 선거구에 433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전남지역 후보들도 13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79세로 이번 선거의 최고령 후보인 오정숙 현 목포농협조합장 역시 10선을 노리며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남철 현 조합장과 전영문 전 전

문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게 될 영광 굴비농협도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한편 신안군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변광섭씨는 이날 오전 목포시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도 광주시산림조합 등 광주 1곳과 전남 34곳은 단독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선거가 후보도 공약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혼자 어

깨피와 전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후보자 검증 토론회조차 금지돼 있으며 집회를 이용한 집단적 지지호소도 할 수 없다.

화순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는 “시작 조건 자체가 다른, 현직 조합장에게 매우 유리한 선거 방식”이라고 토론했다.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발표회나 토론회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시-현대차, 발산마을 개발사업 발대식. 26일 발산마을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발대식을 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가고 싶은 섬’ 6곳 선정

여수 낭도·고흥 연흥도·강진 가우도·완도 소안도·진도 관매도·신안 반월도

전남도의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사업의 2015년 대상지로 여수 낭도, 고흥 연흥도, 강진군 가우도, 완도군 소안도, 진도군 관매도, 신안군 반월·박지도 등 6개 섬이 선정됐다.

이들 섬에는 매년 도비 4억원, 시·군비 4억원 등 8억원이 5년간 지원된다. 전남도는 26일 “지난 1월12일부터 2월4일까지 사업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11개 시·

군 21개 섬이 응모, 이 가운데 6개 섬을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선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고 싶은 섬’ 자문위원회가 맡았으며, 1차 서류심사(30점)와 현장평가(70점)에서 사업규모의 적정성, 아이디어의 창의성, 고유 생태자원, 섬문화 보유, 지속 가능성, 참여 의지 등을 평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5월부터 생활임금제 시행

광주시가 오는 5월부터 ‘광주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광주시는 26일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5월부터 광주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4인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 여가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에 걸쳐 광주시노동센터에 용역을 의뢰해 생활임금 결정방식, 수준, 추진 로드맵 등을 결정했다. 상용 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미혼·단신근로자 생계비 보장 등을 검토한 결과 시급 기준으로 7021원에서 8857원 수준이

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암동 광안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